

내 집에도 그림 한 점 걸어볼까

광주신세계갤러리
31일까지 작가미술장터
‘아트앳홈-예술 가득한 집’
김상연 작가 기획자 참여
50만~150만원 가격대
150여점 전시·판매
인기 작품 첫 날 완판
가상 설치 아트컨설팅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31일까지 열리는 ‘아트 앳 홈’전에 가면 다양한 작품이 걸린 생활공간을 만날 수 있다.

‘한 점의 작품이 공간에 향기를 더한다.’
갤러리 입구에 적힌 글귀처럼, 똑같은 장소에 그림과 조각 한 점이 걸리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주최측이 제작한 영상물엔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 사무실, 카페, 음식점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작품이 걸린 모습이 담겨 있다. 작품이 걸리기 전, 작품이 걸린 후 등 3가지 버전으로 촬영한 영상에 담긴 공간엔 예술의 향기가 흐른다.
2017 작가미술장터 ‘아트앳홈(Art at Home)-예술이 가득한 집’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생활공간에 예술작품을 설치, 일상의 사립터를 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전시다. 시각예술분야 활성화와 미술소장문화 확산을 취지로 기획된 작가미술장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해 지난 2015년 시작된 프로젝트다. 기존 아트페어와 달리 거래 수익금 전부를 해당 작가에게 지급, 작가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올해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김상연씨가 기획자로 참여해 직접 작가들을 선정했다. 이번 전시에는 20대부터 50대 작가들까지 50여명 참여해 약 150여점을 전시중이다. 가격대는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50~150만원선으로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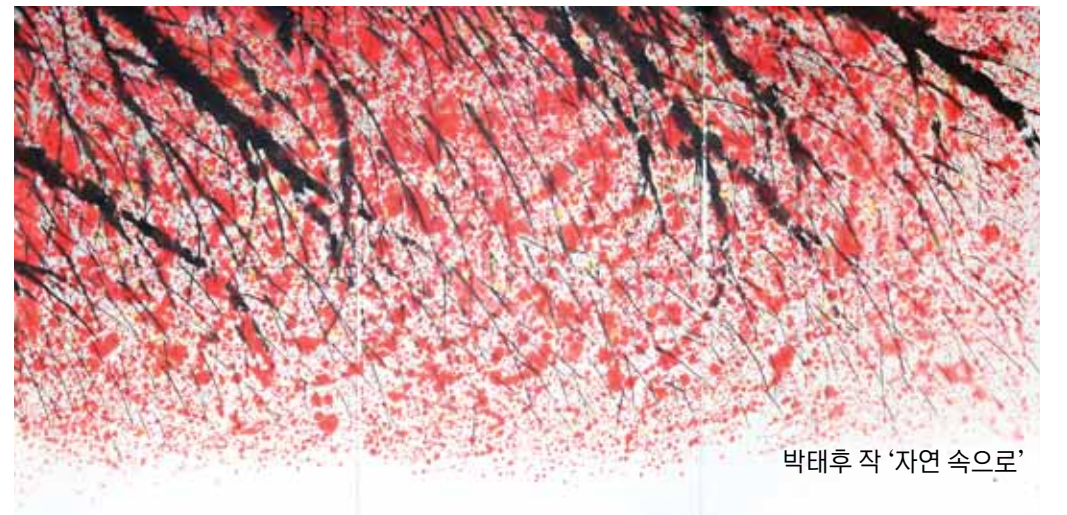
췌고, 한쪽 벽면은 50만원, 100만원 균일가 전으로 꾸렸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사진, 영상,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전시 첫날인 13일 오후 찾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갤러리가 백화점 1층에 자리한 덕에 유동인구도 많았고, 작품을 구입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15일 오후까지 판매액은 약 2500만원 수준으로 이인성·장운환 등 일부 작가 작품은 첫날 완판됐다. 이정록·조사라·이이남·장운환·위승현·전영록 작가의 작품들도 인기가 많고, 판매가 이뤄지면 해당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다시 전시하고 있다.
김상연 작가는 갤러리를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기를 위해 작가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아트페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과 더불어 지적 향유의 수단이기도 하죠. 정신적 만족감과 시각적 즐거움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조금 낯선 그림들도 시민들이 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작품이 고정되는 게 안타까워 다양한 개성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작품 세계가 확고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은 정확한 컨셉을 갖고 있는 작가들을 우선으로 선정했구요.”

40대와 50대 작가들도 작품을 출품했지만 대부분 젊은 후배들을 서포팅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내놓았다. 김상연 작가 역시 비슷한 마음으로 기획자로 참여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궁금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 문화·회화적인 구조를 알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 싶었죠. 좋은 후배 작가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시대가 정신적 방황으로 힘들었다면 후배들은 거기에 현실적 고민들까지 더해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작업하는 후배 작가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죠.”
이번 프로젝트는 중견 참여작가들에게도 흥미로운 전시였다. 20~30대 작가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가 드물어 후배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고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었던 터라 자연스레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참여작가로 현장에서 만난 정광희 작가는 한 20대 젊은 작가의 작품을 유심히 보고 문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고, 후배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막 출발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는 흥미로운 것들도 눈에 띄어 이번 전시는 ‘발견’의 현장이기도 했다.
“우리 집에 이 그림이 걸리는 모습은 어떻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트컨설팅도 진행한다. 인스타그램(art_at_home2017)에 접속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찍어 업로드하면 가상으로 출품 작품이 설치된 집안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신세계 갤러리 쇼윈도에는 이정록·전현숙·실박·양민기 작가 등의 작품으로 꾸민 ‘생활공간’의 모습을 재현해 눈길을 끈다. 21일에는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행운의 부적을 그려주는 ‘나만의 포춘카드’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작가는 구성용·김경아·노여운·배수민·실박·손봉체·신도원·양나희·양민기·윤남웅·이이남·이인성·이정록·이혜리·전현숙·정광희·조사라·차규선씨 등이다.문의 062-360-1271.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0~100만원 균일가전 모습.

박태후·이선복·전명옥 3인 초청전



박태후 작 '자연 속으로'

금봉미술관 17~29일

한국화, 문인화, 서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3명의 작가를 한 자리에 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됐다.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은 시인 박태후, 목정 이선복, 달헌 전명옥 작가를 초청, ‘묵향삼색(墨香三色)’을 주제로 17일부터 29일까지 전시회 개최한다.
세 명의 작가는 전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연와와 기법을 활용, 꾸준히 작업해 오고 있다. 박태후 작가는 작업실인 죽설헌(竹雪軒)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화면을 가득 메운 화려한 색깔의 나무들이 인상적인 ‘자연 속으로’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으로 붉은 색, 노란색, 청명한 색깔이 마음까지 물들인다.
이선복 작가의 작품에서는 편안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나무와 꽃, 개울이 어우러진 자연 속 소박한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한가한 날’은 삭막한 현대인의 삶에 위로를 주며 또 다른 작품들은 힘 있는 기법으로 압도감을 전한다.
전명옥 작가는 기존 서법의 형식을 뛰어넘어 서체를 독특하게 재구성, 서예와 추상적 회화의



전명옥 작 '일체유심조'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작가다. 글자 자체가 갖는 형태와 그 의미에서 핵심을 취한 후 대담한 공간구성과 호방한 붓질로 형상화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17일 오프닝으로 세명의 작가가 합작 휘호 제작 시연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완성된 휘호 작품들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69-98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클래즈 앙상블’ 공연

광주문화예회관 내일 화요일예술무대

광주문화예회관 화요일예술무대 10월의 무대는 ‘클래즈 앙상블’(사진)이 클래식과 재즈를 결합한 무대를 준비했다.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회관 소극장.
클래즈 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훈, 첼리스트 김경일, 재즈피아니스트 강운숙, 메조소프라소 이진진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4년 결성됐다. ‘클래즈’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어려운 클래식을 좀 더 자유로운 장르인 재즈와 결합시켜 대중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 창단된 앙상블이다. 이 날 공연에서는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바흐의 ‘이탈리안 콘체르트’, 쇼팽의 ‘혁명’, 피아졸라의 ‘사계 중 가을’, 탱고 오페라의 ‘요소마리아’, 시노래 ‘마당밥’, ‘베사메무쵸’, ‘기자는 8시



에 떠나네’, ‘돈데보이’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김은영, 기타리스트 이대인, 베이시스트 한수정, 드러머 정명훈이 객원멤버로 참여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9628-163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